

“항상 웃는 천진불 세상 만들고파”...

이완국 (제주 우리절 지도법사·前 제주 더덕분교 교사)



이완국 前 교사는 ... 지난 1988년 5월 경기도 양주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서귀중앙초등학교 근무 때는 남제주군서 열리는 소년체전 식전행사서 풍물놀이를 지도했고, 1997년 전국체전 식전행사에서는 '호저울서'를 주제로 마스게임 기획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03년 특기적성교육 발표회에서는 제주도 초등학교를 대표해 지도사례를 발표했고, 2005년 경기도 고양시서 열린 전국 교육혁신인적자원박람회와 2007년 부산서 열린 전국 방과후페스티벌 행사에 어린이들을 지도해 제주 대표로 승무복가락을 연주해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2년에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광고모델로 뽑혀 각종 방송을 타며 유명 인사가 됐다. 2013년 5월에는 '제 2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월말 애월초등학교서 명예퇴직 후 현재는 우리절 지도법사로 어린이 포교에 매진중이다.

“우당탕” 복도서 아이들이 뛰다. “애들이 조심해야지” 오히려 뛰는 아이들 걱정에 노심초사다. 보통의 경우엔 학교 복도서 뛰는 아이들의 예의없는 행동을 먼저 나무라기 십상이지만 이완국 교사(52)는 좀 달랐다. “아이들 눈망울을 보세요. 모두가 천진불로 보이지 않나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인데 어찌 조금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 교사의 아이들 사랑 철학은 한결하다.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교육현실,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매까지 맞는 슬픈 상황, ‘존경받는 선생’이 아닌 ‘직업인’으로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 현장의 뉴스들 등등.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을 철썩같이 믿고 사명감으로 교사의 길에 나섰지만 일선 교사들은 이런 슬픈 뉴스를 보면 어깨가 축 처진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런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도 묵묵히 교사를 천직으로 어릴 적 꿈을 당당히 펼친이가 바로 이완국 前 애월읍 하가리 더덕분교 교사다. 올해 8월 24일자로 애월초등학교 교사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했으니, 엄밀히 따지면 前 교사라 부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 前 교사는 좀 특별하다. 남들은 도회지로 가고 싶어 안달이지만 이 前 교사는 시골 분교를 고집했다. 그러니 승진 가산점도 없는 더덕분교서 9년째이나 교편을 잡았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요청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꿈꾸는 교육 철학을 펼치기 위해 정직한 사람 냄새 풍기는 시골이 좋아서였다.

이 前 교사가 이렇게 시골학교 매력에 푹 빠진 것은 지난 2000년 발령 받은 농촌의 신장초교서다. 이후 도심지 학교로 갔지만 농촌학교만이 느낄 수 있었던 넉넉한 인심을 도심의 학교는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갈증 느꼈다. 그래서 이 前 교사는 더 작은 학교 분교를 찾아 나섰고, 그동안 눈여겨봤던 더덕분교를 접적어 지난 2005년에 신청했다. 한 학교가 근무가 최대 4년뿐이어서 지난 2009년 다른 학교로 발령 났지만 1년 만에 다시 더덕분교로 재 발령을 받았다.

더덕분교가 제주서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거듭난 것은 남모르게 묵묵히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몰두한 이 前 교사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신뢰가 금강석 같았기 때문이다. 이 前 교사의 교육열정 덕에 폐교위기에 빠졌던 학교가 오히려 도심과 더덕분교 주변마을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이 前 교사가 1년만 더 더덕분교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이 교사의 이런 열정 덕분에 더덕분교는 전국구 스타학교로 급부상했다. 마을에선 더덕분교 폐교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활발히 펼쳤고,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학생수는 18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더덕분교가 있는 하가리 농촌에는 현재 빈집이 없을 정도다. 이런 교육 성공 사례가 매스컴에 알려졌고, 급기야 지난 2012년에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광고모델로 뽑혀 각종 방송을 타며 연예인급 유명인사가 됐다.

“불교가 가르치는 실천은 한 마디로 말해 도덕적으로 약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게 노력하는 사

람, 진실한 바라문이 될 수 있는 도를 우리 중생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자연속에서 진솔하게 교감을 나누며,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초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 철학을 갖고 그동안 이 前 교사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남다른 실험 교육을 시도했다. 더덕분교와 아이들이 좋아 도심의 집도 놔두고 학교 인근에 토굴을 지어 생활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7시가 되면 출근 한 후 이 前 교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에게 선생님미 학교에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학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은 “애들이, 선생님 학교 왔다”라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다. 아이들이 마을에 걸린 듯 이른 아침부터 학교 문을 열어 제친다.

“요즘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했죠. 놀러라도 오고싶은 학교로 만들자고요. 또한 왕따와 괴롭힘 없는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항상 꿈꿨죠.”

그러서인지 이 교사의 교실은 뭔가 달랐다. ‘존구석’인 더덕초등학교 교실에는 경시대회 작품들을 붙여놓는 등 눈요기감으로 가득찬 교실과 달리 뒤편에

도 하면 매섭게 야단을 쳤죠. 저는 그럴때마다 속으로 ‘지도교사들이 그만 두면 어쩌지지’ 하고 고민 했는데 이는 기우였어요. 어릴 적부터 어린이법회 지도 교사들은 이미 스님과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터라 웬만한 나무람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한 곳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도반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연들을 목격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前 교사는 “스님은 지도교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실 정도로 엄격하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내가 지도교사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과 동일 시 된다며 스님과 지도교사는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관계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법회는 지도교사들의 수행이자 자신의 신행이라는 소명을 갖고 임하라는 경책이셨지요. 우리절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통해 저는 25년 교직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前 교사는 우리절 어린이법회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몰두 빠져들었다.

“일반학교 행사의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일이라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인성 스님은 법회때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린이불교학교를 열면 ‘아이들이 뭘 배우고 갈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이불교학교 준비는 두 달 전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회의서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밤새토론은 기본이었고, 어린이 불교학교에 앞서 교사들 간 10년 정도 회의를 거치는데 지도교사가 전문 참석해야 진행할 정도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직장인들이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조 하나 짜더라도 아이들의 성격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죠.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죠. 애정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가 힘을 합쳐 전력합니다.”

이처럼 이 前 교사는 인성 스님을 통해 아이들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 前 교사도 ‘매년 하는 운동회일지라도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갈까’ 고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 때 스님에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다.

이 前 교사는 “좌복에 앉을 때 ‘내 무릎이 옆 사람과 부딪치면 살짝 오르라는 게 배너다’라는 인성 스님의 말씀서 일상 생활서 내가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임을 깨달았다”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발을 바로 놓아주는 것 등을 학교서 아이들에게 말하자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신발을 꼭 돌려놓는다”며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보람을 피력했다.

더덕분교 전교생은 매주 월요일 1교시에 모여 차를 마시며 좋은 이야기와 함께 명상을 한다. 더덕분교는 아이들의 승무복 공연을 통해 얻은 ‘사레금’을 모아 차방에 좌복도 만들었다. 불전함에 올릴 단돈 천원도 다량질한 깨끗한 돈을 올리는데서부터 기도 가 시작되듯 아이들을 위한 물건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前 교사의 신조였다. 그래서 좌복도 국내산 최고의 목욕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前 교사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존

교실에 茶室 마련해 아이들과 차담

민속, 음악, 예술 매개체로 어린이 포교
봉축법요식, 도내 불교행사 등 단골 초청

폐교 위기서 인기학교로 탈바꿈 일등공신
대불련 회장때 만난 불교... 교육철학 원천
2013년 5월 제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사재를 털어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방(茶房)을 만들었다. 교실서 다도를 할 수 있게 꾸며 놓은 것이다. 차를 통해 교사와 아이들, 또는 동급생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를 교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뿐 아니라 근무하면서 틈이 모은 옛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생활용품을 복도와 교실에 전시해 학교를 작은 박물관처럼 꾸몄다.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어 놓았더니 아이들이 학교와 이 前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 모던 이 前 교사의 교육 철학의 근간은 바로 불교에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불교의 가르침은 제주교육대학 시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시작했다. 초심자였던 그에게 환희심을 솟구치게 했던 것은 대불련 시절 도반의 부탁으로 지난 2007년 애월읍 광명리 우리절 동연어린이특별법회 때 사물놀이를 가르치면서부터다. 그때 우리절 주지 인성 스님의 어린이 포교에 큰 감명을 받고 동연어린이회 지도교사로 본격 나섰다.

이 前 교사는 “주지 스님은 지도교사들이 실수라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리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무료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풀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매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 : (02)723-4533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예나뉘 처리까지한 일만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움직이던 교통카드 쫓기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옆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옆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이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 안병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불교문화로 어린이 포교



2015년 제주 봉축법요식 당시 이완국 前교사가 지도한 어린이법회 아이들이 활기차게 승무복을 시연하고 있다.



우리절서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고 있는 이완국 前교사



이완국 前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더덕불교 교실뒤편에 이 前교사가 마련한 다실서의 차담 장면

중반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좌복으로 만들었다"며 "좌복을 함부로 한다면 너희 가치도 그만큼 잃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들 스스로가 좌복에 똑바로 앉지 않는 아이가 없었다.

이 前 교사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지마, 하지마"라고 통제하지 않아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먼저 살펴봐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복도서 뛰어다니다면 "야, 왜 뛰어 다녀?"라고 나무라기 보다는 "너, 잘 뛰는구나. 뭘 줄 아는 사람은 걸을 줄도 알지. 복도서 '걷기'라는 것도 해봐. 기분이 어떨지, 다음에 걸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꼭 자랑 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선택과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줬다. 효과는 컸다. 이 前 교사의 인내와 노력은 마침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교육에 앞서 이 前 교사 스스로도 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매일 아침 108배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열겠다고 다짐한다. 하루를 일찍 시작한 날은 108참회문을 통해 참회와 감사, 발원으로 자신을 다독인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새벽 4시면 '우리절'로 향한다. 간경법회가 있는 날이다. 지난 2007년 초발심자경문을 시작으로 금강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독송해 왔고, 요즘은 아함경공부에 푹 빠져있다.

"자기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기도의 참 맛을 알 때 그 수행함을 알듯이 끊임없이 자신의 번뇌 먼지를 털어내는 일, 그것이 내 자신과의 약속이자 바로 아이들과의 약속이죠."

이 前 교사의 문화포교는 '멈출 수 없는' 까도 한 몫했다. 대부분 남자 교사들이 체육 담당을 맡는 것과 달리 이 前 교사는 '민속·음악·예술'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며 제주도에 교육계에 자신을 각인시켰다. 이 前 교사는 특

히 레크리에이션 지도와 웃음치료를 특기가 있어 외부 강의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직장교육 등과 제주도내 초, 중, 고 학생 대상 마음수련활동, 축제 등에 초대돼 강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기강사이기도 하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초임발령지인 양수초등학교서 풍물반을 조직해 학생들에게 풍물과 승무복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0년 서귀중앙초등학교 근무 때는 남제주군서 열리는 소년체전 식전행사에서 풍물놀이 지도했고, 1997년 전국체전 식전행사에서 '흔저 읍서'를 주제로 마스게임을 기획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03년 특기적성교육 발표회에서는 제주도 초등학교를 대표해 지도사례를 발표했고, 2005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전국 교육혁신인적자원박람회와 2007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 방과후페스티벌 행사에 어린이들을 지도해 제주 대표로 승무복가락을 연주해 이름을 알렸다. 이 前 교사가 떠난 현재의 더덕불교 어린이들은 아직도 전교생이 승무복 가락을 연주하며 전국 규모 행사에 초대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前 교사가 가져온 초석 덕택이다. 이 前 교사의 봉사과 문화 포교는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학교를 개방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 봉사에 헌신했고,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상담자로, 교육자로 활동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역에 있는 생활개선회 풍물반을 대상으로 승무복가락을 지도해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무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웃음으로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란 이름으로 웃음치료교실도 꾸준히 열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우리절 동년 어린이회 사물놀이팀도 구성, 승무복을 제주

연등축제 및 도내 불교행사 등에 선보이며 단골손님으로 초대돼 각광을 받고 있다.

그의 노력은 2013년 5월 '대한민국 스승상'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완국 前 교사는 제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초등부로서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한 상이다.

목표치 현실인 교육자로 참다운 스승상 정립을 위한 이상의 목적과 '딱' 맞아떨어졌다. 그는 상금으로 수여된 1천만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대웅전 중창발사중이던 우리절에 보시했다.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 준 우리절에 대한 고마움의 답례였다고 털어놓는다.

이 前 교사는 애월초등학교서 지난 8월말 명예퇴직을 했다. 요즘 선망의 직업종 하나 교사를 10년이나 정년을 넘겨놓고 왜 박차고 나왔을까?

그는 말한다. "매스컴에 많이 알려지다보니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월 10회 이상이었지만 근무시간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강사로 없이 재능나눔 봉사과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요.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의 모태가 된 더덕불교 옆에 누구든지 오면 편안히 마음을 쉬고 갈 수 있는 찻집을 만들고 싶은 오랜 꿈도 실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가장 큰 이유는 올해 9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면서 착한 아들로 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 능력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꽤 있었지만 저는 천성적으로 아이들과 뒤섞어 노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절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물론 방과후 교실 등 기회가 주어지면 어린이 포교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주일 기자 · 이병철 제주불교신문기자

전법일기

교도소 담장 너머도 해탈의 기쁨이

교도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어리고 젊었던 20대 시절, 맨 처음 교도소를 가던 날이 생생하다. 교도관의 뒤꽂무니를 따라 두꺼운 철문을 지나서 긴 복도를 걸어가갈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그 날은 하도 떨려서 수감자들의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허둥지둥 법원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세월 따라 교도소도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문을 지날 때마다 교도관이 무쇠로 만든 열쇠꾸러미를 한 다발씩 들고 하나하나 문을 열었는데, 요즘은 간단한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또 시설도 많이 쾌적해져서 과거에 비해 덜 삭막하고 지내기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문과 문을 지나 좁고 긴 통로를 지날 때면 여전히 낯설고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든다.

를 저질렀지만 한 생각을 돌리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을까.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의 눈가가 별걸 게 붙어졌다. 아마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내면의 불성이 깨어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마음의 해탈을 얻으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바깥에 나가 몸이 자유롭다 해도 해탈을 얻지 못하면 여기보다 못한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을 일으켜 이곳에서 해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세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날 법원에서 내려왔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종교위원의 자격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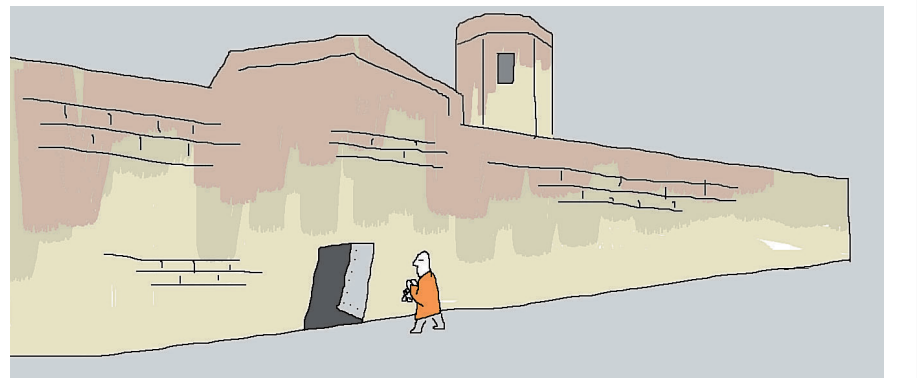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각자 무슨 인생에 우여곡절을 있어 이곳까지 흘러들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일 한 번씩 수감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려고 법상에 설 때마다 나는 그들의 말 못할 사연이 오롯이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올해 초 개나리가 막 피던 봄날이었던 것 같다. 유독 기억에 남는 법회가 있었다. 그날은 법문 대신 아무 말 없이 "해탈의 기쁨"이라는 찬불가를 들려준 적이 있다.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 보니/천상천하 넓은 우주 걸릴 것이 하나 없고/평등한 성품 속엔 나와 내가 따로 없네./ 대재제 유아독존 바로 이것인 것을/해탈의 참된 기쁨 사바세계 가득하네."라는 노랫말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감자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랫말을 마음으로 새기는 듯 보였다. 노래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 곡의 노래가 백 마디의 법문보다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깊은 침묵이 지난 뒤 나는 노랫말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는 평등한 성품을 가진 존재이며 비록 과거의 잘못으로 큰 죄

로 교도소에서 부처님 말씀에 전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대구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의정부까지 가는 멀고 긴 여정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높은 담장 너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묵말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교계에서 교도소 포교활동을 하겠다고 선포 나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스스로 비유와 시간들 들여야 하는 일이고, 겉보기에 빛이 나는 일도 아니니 다른 일에 순서가 밀리기 일쑤다. 과거 지장보살님께서는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셨다. 비록 지장보살만큼 큰 원력을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이 땅에서 부처님의 법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감옥에 갇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언젠가 부처가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덕신 스님(좋은벗 불경소리 회장)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했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불교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